

# 건축의 물질성과 추상성의 관계 모델링을 위한 기호학적 연구\*

황영삼\*\*

##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건축의 물질성과 추상성
  - 1. 건축의 구축성과 상징성
  - 2. 건축의 물질성과 추상성
- III. 의미 모델링을 위한 포함 관계 구조
  - 1. 기호포함구조
  - 2. 의미 구조 기반으로서의 도메인 포함 구조
- IV. 의미 구조 기반으로서의 건축기호 포함구조
- V. 나오면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건축 모델링에 기호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적용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여러 연구 주제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건축을 구성하는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성과 추상성 간 관계의 모델링에 퍼스 기호학 원리의 적용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성과 상징성이라는 건축적 주제를 물질성과 추상성이라는 기호학적 주제로 변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중간 유형론을 구성하는 10개 기호들을 위상적 포함 관계에 의한 연속체인 기호포함구조로 재구성한 후,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관계의 유형들을 고찰하였다.

\* 본 연구는 2020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제1저자,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hwang03@inu.ac.kr](mailto:hwang03@inu.ac.kr)

단위 기호에서의 기호 요소별 삼원적 포함관계에 담긴 수렴과 확산에 의한 개연적 논리구조는 기호포함구조를 이루는 기호군(법칙기호군, 개별기호군, 상징법칙기호군) 간 삼원적 포함관계에서도 성립한다. 법칙기호와 개별기호 간 포함관계(일반성-특수성)는 개별기호로 수렴되고 개별기호는 상징법칙기호로 확산된다. 관계의 위상적 변화 관점에서 본다면 상징법칙기호는 양 기호 간 관계(일반성과 특수성 간)가 개별기호를 통해 재현적으로 수렴된 것이 상징법칙기호와의 관계로 해석적으로 확산되어 생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칙기호는 개별기호를 한정하고, 개별기호는 상징법칙기호를 한정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물질성과 추상성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이다. 이들은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기호학적 포함 원리와 추론을 통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 다수 기호들로 구성된 기호포함구조는 단일 기호 내 기호작용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물질성에 대한 추상성 해석의 포괄적 기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건축의 자율성에 대한 기호의 재현체별, 해석체별 이중 포함 원리, 그리고 기호군 간 삼원 관계를 바탕으로 물질성으로부터 추상성을 해석해내기 위한 제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열쇠어 : 퍼스 기호학, 건축기호모델, 건축기호학, 건축기호, 건축의 의미, 도메인

## I. 들어가며

건축물과 같은 인공물(artefact)은 정신 세계에서 생성되고 인식되는 추상적 존재임과 동시에, 실세계에서 가시적, 체험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이다. 이들 건축물의 양면 간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건축의 의미에 대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건축이론 영역에서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근대성과 현대성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건축공간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모더니즘의 보편적 건축공간의 기능적 의미,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별적 건축공간의 불확정적, 맥락적 의미 간 관계 설정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공간을 창조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구조주의와 탈구

조주의로 이행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모더니즘에서는 형태와 기능적 의미 간 관계가 문화권별, 기술적 구조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작가별, 이데올로기별로 고정적 관계 구조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구문론적, 의미론적 자율적 변형의 결합에 의한 언어학적 관계 구조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중 코드에 의한 비결정적, 독립적 관계 구조이고, 결과적으로 건축 형태 디자인의 폭이 크고 다양하다.<sup>1)</sup>

포스트모더니즘 시기 초기에는 건축의 자연언어적 관계 구조를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형태어휘와 디자인 문법을 찾아내려는 이론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 연구들에서 얻어진 성과는 다소 제한적이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후속 연구가 부재하다. 그것은 언어로서의 건축이 자연언어와 원리적으로 상이하고 또 건축언어의 구조를 찾기 힘들다는 근본적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건축 영역에 기호학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주로 소쉬르 계열의 기호론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발하였고 퍼스의 기호학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였다. 초기 1970년대에 이루어진 후자의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Blomeyer, Helmholtz의 연구와 Dreyer의 연구가 있다. Blomeyer와 Helmholtz의 방식에서는 먼저 대상체로서의 건축물과 기호와의 관계를 1차, 2차, 3차성으로 구분(sensory perceptible substance, particular form, physical, constructive laws)하고 다른 두 측면들은 첫째 구분과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들은 디자인 창의성을 디자인이너의 소임으로 보아 물리적 특성의 구분 방식에 치우쳤다.<sup>3)</sup> Dreyer의 방식에서는 표상체는 재료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부재, 부재 간 관계, 일반적 질서), 대상체는 프로그램에 따라(공사 유형, 기능 유형, 형태 유

1) 양동양, 『현대건축론』, 기문당, 2003, 199~200쪽. 여기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편의상 모더니즘을 제외한 현대건축의 흐름을 통칭하는 것임.(대중주의, 네오모더니즘, 해체주의 등 포함)

2) Forty, A., *Words and Buildings*, 2004, 『건축을 말한다』, 2009, 95~102쪽.

3) Krampen, M., *Meaning in the Urban Environment*, Routledge, 1979, pp.44~45.

형), 해석체는 가치에 따라(경제적 가치, 용도적 가치, 이데올로기적 가치) 각각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최근 들어 미국에서 퍼스 기호학의 가능성이 부각되어 추론, 해석, 다층구조 원리를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sup>5)</sup>

본 연구는 건축 모델링에 기호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방법론에 관한 여러 연구 주제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건축을 구성하는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성과 추상성 간 관계 구조의 모델링에 퍼스 기호학 원리의 적용성에 대한 고찰이다.

## II. 건축의 물질성과 추상성

### 1. 건축의 구축성과 상징성

19 세기 이후 전개된 현대 건축 이론의 전개는 구축 이론과 상징 이론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구축으로서의 건축 이론은 프랑스 수도사 로지에가 제시한 이론으로 기둥, 보, 지붕으로 구성된 원시 오두막의 물리적 구조가 건축의 원형이라는 이론이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근현대 건축 이론인 상징으로서의 건축 이론은 프랑스 건축가 르두와 불레의 이론으로 구, 원통형 등의 기본 형태에서 상징으로서의 건축의 본질을 찾는 이론이다. 양 이론은 현대 건축의 양면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립적 이론으로서, 현대 건축에서 전개되고 있는 건축 사조들의 발전의 근간이다.<sup>6)</sup>

구축성과 상징성은 건축의 원리적 자질이다. 구축성은 건축물이 선별된 재료로 제작된 물리적 인공 구조물이고 부위 또는 단위 공간의 형태, 재질, 공간감 등이 지각을 통해 체험되어진다는 건축의 물리적 단면이다.

4) 황영삼, 박미진, 김영희, 「퍼스 기호 유형론의 건축 디자인 적용 연구」, 『기호학 연구』 54, 한국기호학회, 2018, 205~224쪽.

5) 참고문헌 내 Silva의 책과 Seif의 글 참조.

6) Lampugnani, M,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1978, 윤재희 번역, 132쪽, 1982.

상징성은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건축적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기능주의, 표현주의, 해체주의 등 건축 사조에 따라 달라진다.<sup>7)</sup>

이러한 양면성을 기호학 관점에서 본다면 포괄적으로 구축성은 기표이고 상징성은 기의이다. 기능, 사회문화적 특성 등 건축의 내용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등에 의해 표현되고 해석되어지는 의미라는 것이다.<sup>8)</sup> 또한 구축성과 상징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실세계에서의 물질적 형식에 의미로서의 추상적 내용이 관계지어지는 의미생산과정(signification)이다. 이에 따라 구축성과 상징성이라는 건축적 주제는 물질성과 추상성의 관계 구조라는 기호학적 주제로 변경될 수 있게 된다.

물질성과 추상성은 철학사에서 이어져온 실재론(realism)과 유명론(nominalism)의 보편 논쟁과 관계 있다. 실재론은 보편이 실제로 존재하고 개별을 선행한다는 사상이고 유명론은 그 반대 사상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호학의 입장은 학자별로 상이하다. 퍼스는 실재론에 기반하고, 엘를슬레우는 유명론적 접근방식이며, 에코는 양 이론 모두에 개방적이다.<sup>9)</sup> 중요한 것은 퍼스의 범주론에서 실재론적 보편으로서의 법칙 기호가 기호의 세계 전체의 일반적, 계약적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이 법칙 기호는 단위 기호들의 재현체와 해석체 간 보편적, 불가분적 관계를 설정해줌으로써 퍼스 기호학은 물질성과 추상성 간 간결한 관계 형식이 된다.

## 2. 건축의 물질성과 추상성

건축물은 물질성과 추상성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물질성은 형태,

7)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113~121쪽.

8) Eco, U., "A Componential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Sign /Column",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 1980, pp.213~232.

9) Proni, G., "Umberto Eco and Charles Peirce: A slow and respectful convergence", in *Semiotica* 206, 2015. pp.13~15.

공간의 넓고 좁음 등 지각되어지는 재료적, 공간 형식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추상성은 쾌적함, 전통성, 사회교류성 등 물질성의 지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능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양면 간에는 일정한 관계 구조가 있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추상성은 물질성으로부터 생산된다. 예를 들어 어느 카페 공간이 적당한 크기라면 안락감을 느껴 앉아 대화해보고 싶어지게 된다. 행군 대열의 형태를 보면 지휘관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이것을 퍼스 기호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물리적 실체는 문화적, 기술적 원리 또는 법칙의 구현(embodiment)이다. 특정 카페의 안락감은 일반 법칙 ‘카페가 크기가 적당하면 안락감을 느낀다’의 개별 사례인 것이다.

건축물은 또한 인간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조된 인공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합목적성(purposiveness)과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건축물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관계 구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생산되는 기호학적 의미이다. 그 과정은 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 대해서 수행되는 기호작용이다. 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은 해석체로서의 의미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원적으로 직접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표상체로서의 기호라는 매개 고리를 통해 목적론적 관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상의 이해를 위해 수행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 해석을 위해 표상체는 관계맺기 또는 관계 구조 형성을 위한 행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물의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는 삼원적 원리는 표상체의 목적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호학 이외 타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전산학적 건축 모델링 연구를 살펴보면 부재 결합, 공간 구조 등 물리적 모델링 연구에 치중하거나 일차 의미인 기능적 의미 모델링에 제한되어 왔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해석은 발신자의 인코딩과 수신자의 디코딩을 연결하는 공유 코드에 이루어진다는 코드 이론 및 커뮤니케이션 이론

에 의해 의미 전달 및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방식에서는 전달되거나 해석되는 의미가 지시적 의미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모더니즘 건축에 비하여 기능적 의미보다 더 심층적인 사회문화적, 심미적 의미가 관련되기 때문에 복합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말하자면 모더니즘은 반은유적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은유적, 또는 수사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해석은 심층적 의미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퍼스 기호학의 관계 구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퍼스 기호학에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코드 대신 표상체가 형성하는 삼원적 관계 구조가 코드를 대신하면서 생산자와 해석자의 주체적, 맥락적, 상황적 의미 해석의 폭이 커진다.

### Ⅲ. 의미 모델링을 위한 포함 관계 구조

퍼스의 삼원론은 한정에 의한 의미 생산 원리이다. 대상의 특성은 목적 지향적 표상체를 통하여 또다른 대상으로 변환되어진다. 표상체의 역할은 재현과 한정(determination)이다.<sup>10)</sup> 재현하되 확대적 해석이 아닌 한정적 해석을 위해 한정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한정적 재현과 한정적 해석에 의해 생산되는 해석체는 목표지향적 한정적 의미이다. 한정 없이는 해석체는 의미 찾아 헤매기만 하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한정에는 주체(subject)라는 내적 직접적 한정 요인과 맥락(context)과 상황(circumstance)이라는 외적 요인이 관련된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에 따라 한정 양식이 달라지고 생산되는 의미가 달라진다.

---

10) Liszka, J.,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1996.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2013, 73~75쪽.

## 1. 기호포함구조

모든 삼원적 관계 체계는 하나의 삼원적 관계, 세 개의 이원적 관계들, 세 개의 일원적 성격을 가진다는(CP 6.331) 퍼스의 법칙 아래, 모든 삼원체는 일곱 개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sup>11)</sup> 이것은 열 개의 기호 유형들을 위상적 관계로 재구성한 유형 관계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위 기호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일곱 개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 또는 세 개의 삼원체 기호 간 관계에서도 동일한 관계가 형성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 주제에 대한 고찰에서는 중간 유형론을 구성하는 9개 기호들(자질기호 제외)을 포함 관계에 의한 위상적 연속체인 기호포함구조로 재구성한 후, 새롭게 나타나는 관계들의 유형들을 구분하였다. 기호포함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기호 내외 협력적 상호작용을 단일 기호 내 삼원 관계, 기호군 간 이원 관계, 기호군 간 삼원 관계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에 대한 탐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호군 간 이원 관계에 해당하는 포함 구조는 법칙기호와 개별기호 간에 ( $S5 \supset S2$ ), ( $S6 \supset S3$ ), ( $S7 \supset S4$ ) 등 세 개의 조합이 있다고 했고, 상징법칙기호와 개별기호 간에는 ( $S8 \supset S3$ ), ( $S9 \supset S4$ ) 등 두 개의 조합이 있다고 했다(그림 1 참조). 전자는 체현(embodiment)이고 후자는 복제(replication)이다. 이어서 기호군 간 삼원 관계에 해당하는 포함 구조는  $S6-S3-S8$ , 그리고  $S7-S4-S9$  등 두 개의 조합이 있다고 했다.<sup>12)</sup>

기호포함구조는 기호 유형들의 위상적 관계에 의한 연속체이다. 그것은 단일 기호에서 세 기호요소들의 협력으로 삼원 기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원리, 곧 기호의 근거(ground) 위에서 일어나는 재현과 해석이 선택과 확장을 위한 협력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기호포함구조 내 기호 간 상호

11) 같은 책, 229쪽.

12) 황영삼, 「퍼스 포함구조 기반 의미생산과 도시장소 시험적용」, 『기호학 연구』64, 한국기호학회, 2021. 193~211쪽.



작용의 원리에도 유사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호포함구조는 단일 기호 내 삼원적 포함관계가 기호 간 관계로 연장된 연속체인 것이다.([그림 1] 참조)

퍼스 기호학의 근간을 이루는 위상 체계의 연속성은 도메인 관계체계의 발전 과정에 대응한다. 이것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해보면, 담화영역(domain of discourse)은 9개의 기호에 대응하는 9개의 도메인(domains)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도메인들이 상호 결합한 관계적 요소로서의 도메인 관계체인 도메인 분역(subdomain)은 10개의 삼원 기호 유형에 대응하는 열 개의 삼원 도메인 유형에 해당한다.<sup>13)</sup>

여기에서 도메인과 도메인 분역의 포괄성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퍼스 기호학에서는 담화영역에 대한 진술이 보편 수사학에서 대화적 조건의 일부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모든 명제에서 그것의 발화적 상황은 그것이 어떤 개인 또는 가능성의 집합을 가리키며, 이는 적절하게 기술될 수 없으며, 단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익숙한 어떤 것으로서 표시될 뿐이다”(CP 2.536)<sup>14)</sup> 여기서 발화적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은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범주론에서의 각 범주의 포괄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본 연구의 담화영역을 구성하는 도메인의 포괄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퍼스 기호학에서 도메인 분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술은 발견되지 않지만 퍼스 범주론과 기호 유형론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 전자를 담화영역에, 후자를 도메인분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호 유형론은 삼원적 구조의 목적론적 도메인 관계체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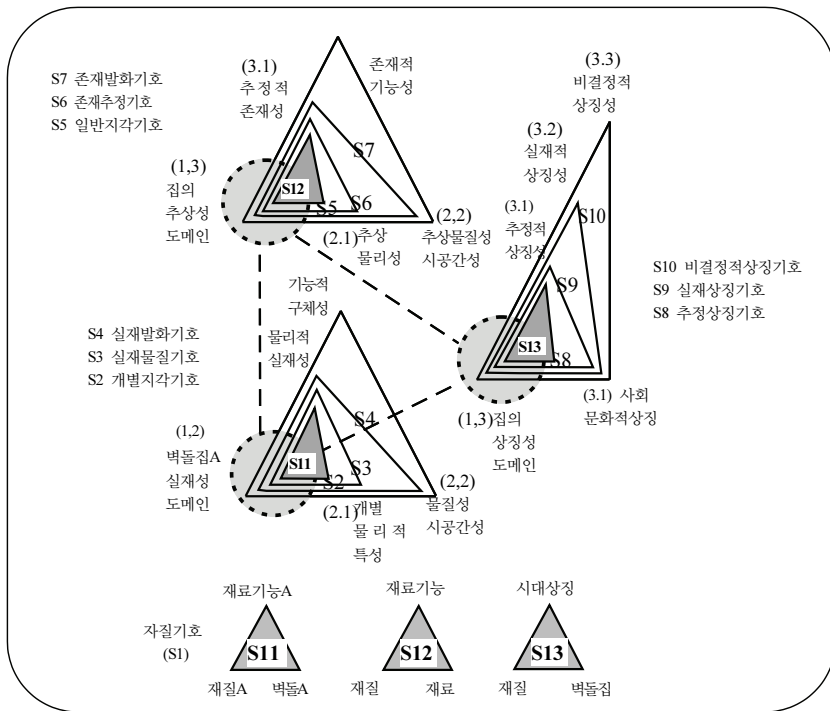
[그림 1]에서 각 도메인은 엔티티 결합체로서의 다수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메인의 상대적 위상을 나타내는 기호가 명칭 또는 이원적 위

13) 황영삼, 「도메인 관계체계로서의 퍼스 기호학」, 『기호학 연구』58, 한국기호학회, 2020, 141~161쪽.

14) 같은 책, 181쪽.

상 코드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도상적 개별기호(본 연구에서는 (2, 1)로 표기)는<sup>15)</sup> 엔티티로서의 도상성과 엔티티로서의 실재적 대상의 결합체로 ‘도상적 개별기호’, ‘형태기호’ 등의 명칭을 가지고, ‘(2, 1)’의 위상 코드를 가질 수 있다.<sup>16)</sup>

기호포함구조는 비결정적 구조이다. 그것은 단일 포함구조에서는 표상체를 공유함으로써 따르는 한정 하에서의 기호군 내 비결정성으로 나타나고, 이원적 포함구조에서는 법칙기호의 일반적 비결정성과 개별기호의 개별적 비결정성이 한정성을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그림 1] ‘House’에 대한 기호포함구조

15) 첫째 자리수의 존재론적 범주와 둘째 자리수의 현상학적 범주가 결합되어 도메인의 위상을 표기한다. 예를 들어 (3, 2)는 지시기호(dicisign) 도메인.

16) 같은 글, 141~161쪽.

삼원적 포함구조에서 세 기호들의 협력에 의하여 삼원 기호작용이 일어날 때 체현과 복제를 기반으로 고도의 비결정성이 나타난다. 실제 대상에 대한 복합포함구조에서는 이들 세 유형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비결정성이 증가한다. 제시된 기호포함구조는 다수 기호들의 연속체 모델이고 실제 실세계의 대상도 다수 유형의 다수 기호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 2. 의미 구조 기반으로서의 도메인 포함 구조

포함 관계는 기호 간 논리적 관계의 기반으로 관계 논리학의 개념이다. 퍼스는 관계 논리학의 관심 영역이 형식적 관계의 일반성이고, 추론의 가장 일반적인 근본 원리가 이 포함 관계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든 추론(inference)에 논리적 관계로서의 함축(implication)( $p \rightarrow q$ )이 관여하고, 함축은 기호학적 포함(inclusion)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포함 관계는 원래 논리적, 수학적 개념이지만 다이어그램적 사고에서와 같이 부분과 전체 간 관계로 단순화시켜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sup>17)</sup>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기호의 포함 관계에 관한 다이어그램적 사고의 대상 범위가 기호 자체의 포함 관계 뿐만 아니라 그 포함 관계의 근거와 과정로서의 추론과 함축 논리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된다. 이 추론과 함축 논리는 다이어그램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지만 포함 관계에 관한 집합적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함 관계는 다이어그램 크기의 차이는 추론 논리와 과정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의미는 형식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성, 해석되고 운반된다. 퍼스의 삼원 모델은 형식의 구조 모델이고 동시에 의미의 구조 모델이다. 의미는 기호에 직접 표현될 수도 있고 기호 요소들 간 형식적 관계 구조로 표현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의미 생성과 해석은 추론되어야 한다. 좀

---

17) 같은 책, 127쪽.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호  $p$ 가 기호  $q$ 를 포함하는 경우( $p \rightarrow q$ )  $q$ 는  $p$ 로부터 연역에 의해 추론될 수 있고,  $p$ 는  $q$ 로부터 귀납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가 직접 표현된 것이든 구조적으로 모델링된 것이든 추론에는 주체의 관점이 관련되고, 맥락과 상황이 관계된다. 주체는 재현과 해석, 그리고 기호의 목적 지향성에 대한 내적 직접적 한정 요소이다. 반면 맥락과 상황은 기호 외부 요소로 작용하여 한정적 재현과 한정적 해석에 참여한다. 기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는 의미는 그러한 주체에 의한 내적 한정과 맥락과 상황에 의한 외적 한정의 결과이다. 퍼스의 모델에서는 이들 세 요소들이 기호에 포함되지 않고 기호 외부에 위치하면서 한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리츨카는 확장 유형론을 구성하는 관계의 종류를 논하면서 모두 28개의 관계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들 중 표상체를 포함하면서 삼원적 기호작용을 형성하는 관계의 조합은 표상체-역동적 대상-역동적 해석체, 그리고 표상체-직접적 대상-직접적 해석체 등 2개의 조합에 그치고, 나머지 요소들 간 관계들의 상호 작용들은 삼원 기호작용은 아니다. 즉 역동적 모델에서 일어나는 삼원 작용은 이 두 개 관계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 직접적 요소 두 개는 역동적 요소 두 개에 종속된 것으로 두 개의 도메인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유형론은 중간 유형론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 대상은 역동적 대상과 함께 대상 도메인으로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고, 직접적 해석체는 역동적 해석체와 함께 해석체 도메인으로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 대상과 직접적 해석체가 주로 지각적 경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수렴과 확산에 의한 포괄성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확장 유형론은 중간 유형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IV. 의미 구조 기반으로서의 건축기호 포함구조

기호포함구조를 의미 구조의 기반으로 삼아 본 연구의 주제인 물질성과 추상성의 관계 모델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고찰된다.

첫째, 삼원론적 단일 기호 내에서 물질성과 추상성은 각각 대상, 해석체에 해당한다. 대상의 의미 해석 과정에 대한 모델링 방식에는 삼원적 방식과 이원적 방식이 있다. 전자는 제삼의 표상체를 통한 관계맺기 방식이고, 후자는 직접 관계맺기 방식이다. 앞에서 진술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해석은 심층적 의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퍼스 기호학의 삼원 관계 구조가 적절하다. 실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서 이루어진 정신적 모델은 역사성, 대중성, 도시맥락의 표상에 의하여 전자의 삼원적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험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형태의 자율성 개념이 강조되어 후자의 방식으로 형태론적 발전이 의미론과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유의해 보면 현대 건축의 자율성 원리는 위의 직접 관계맺기의 이원적 방식이 아니고 삼원적 방식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심층 관계맺기의 방식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즉 형태와 의미 간 관계 구조가 초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삼원 모델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형태적 이원 모델과 의미적 이원 모델이 상호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중적 구조라는 것이다.<sup>18)</sup>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 이원 모델이란 기호군별 형태 기호(재현체) 간, 그리고 의미 기호(해석체) 간 이원 모델을 말한다.

18) 실제 건축 설계에 퍼스 방법론이 활용된 사례는 없고, 작품 해석에 활용된 사례에 그치고 있다. 간접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해체주의에서 다수 발견된다. 형태의 자율성은 오스트리아 건축가 옹거스가 1960년대에 재발견한 이후, 피터 아이젠만이 자율성 원리를 문법적으로 발전시킨 구문론적 디자인 기법을 제시하였고, 버나드 추미는 이벤트 건축에서 불확정적 기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이원 모델들은 기호군별 공통 표상체 고리로 연결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삼원적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물질성에 대한 추상성의 해석은 법칙기호, 개별기호, 상징법칙기호 간 삼원적 관계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법칙기호는 지식, 관습의 형식이기 때문에 물질성으로 나타나는 구체성을 결여한다는 한계에 머무는데, 그것의 구체적 체현으로서의 개별기호로서의 표상을 통해 상징적 해석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표상체로서의 기호는 목적 지향적 기호일 수도 있고, 지각적 경험 기호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법칙기호의 일반적 목적 지향성은 개별기호의 그것에 의해 한정되어 상징기호의 그것으로 해석되게 된다.(예를 들어 기능중심적 건축) 후자의 경우의 예를 들면, 벽돌 건축의 재질감에 대한 일반 해석(법칙기호)는 특정 벽돌 건축물에 대한 해석(개별기호)에 의해 한정되어 과거 시대의 추억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상징으로 해석되고 목적 지향성은 그 상징법칙기호와의 관계맺기이다. 이에 따라 기호유형들의 관계구조는 각 유형들의 관계와 최상위 상징법칙기호 간 관계맺기의 구조가 된다.<sup>19)</sup> 나아가서 유형들 간에는 단일 기호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호작용과 유사하게 삼원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징법칙기호로 나타나는 해석체는 또다른 유형들 간 삼원적 관계의 기호로 작용하게 된다. 즉 유형들 간 무한 세미오시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 유형들 간 삼원적 관계는 법칙기호의 물질성에 대한 해석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는 원리로서 앞의 이중적 삼원 구조에 뒤이어 현대 건축의 삼중적 삼원 구조에 관한 세번째 기호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일 기호에서의 기호작용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물질성(재료감, 양피감, 빛 등)에 대한 심층 해석의 원리가 된다.

S7-S4-S9 간 삼원적 관계로 이루어진 구체적 한 예로서, 특정 건축물에서 공간체험을 통한 개념적 문화체험(S4), 공간체험은 건축체험(S7),

---

19) 같은 책, 92쪽.

특정 작품에서의 공간체험은 문화체험을 유발함(S9)이라는 세 개 기호들 간 삼원 관계를 들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비유에서, 공간은 그릇이다(S3), 건축은 공간이다.(S6),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S8)라는 세 개 기호들 간 삼원 관계가 형성된다.

## V. 나오면서

본 연구는 건축 모델링에 기호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방법론에 관한 여러 연구 주제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건축을 구성하는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성과 추상성 간 관계 모델링에 퍼스 기호학 원리의 적용성에 대한 고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성과 상징성이라는 건축적 주제를 물질성과 추상성이라는 기호학적 주제로 변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중간 유형론을 구성하는 아홉 개 기호들을 포함 관계에 의한 위상적 연속체인 기호포함구조로 재구성한 후,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관계의 유형들을 고찰하였다.

단위 기호에서의 기호요소별 삼원적 포함관계에 담긴 개연적 논리구조는 기호포함구조를 이루는 기호군(법칙기호군, 개별기호군, 상징법칙기호군) 간 삼원적 포함관계에서도 성립한다. 법칙기호와 개별기호 간 포함관계(일반성-특수성)는 개별기호로 수렴되고 개별기호는 상징법칙기호로 확산된다. 관계의 위상적 변화 관점에서 본다면 상징법칙기호는 양 기호 간 관계(일반성-특수성)가 개별기호를 통해 재현적으로 수렴된 것이 상징법칙기호와의 관계로 확산되어 재생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칙기호는 개별기호를 통하여 수렴적 재현과 확장적 해석을 한정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호 유형들 간 삼원적 관계는 법칙기호의 물질성에 대한 해석의 범위와 방식을 기호학적으로 수렴, 확산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일 기호와 유사하게 다수

기호들 간에도 관계체 형성을 통해 또다른 무한 세미오시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호포함구조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건축의 자율성에 대한 기호의 재현체별, 해석체별 이중 포함 원리, 그리고 기호군 간 삼원 관계를 바탕으로 물질성으로부터 추상성을 해석해내기 위한 제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양동양, 『현대건축론』, 기문당, 2003.
-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 황영삼, 박미진, 김영희, 「퍼스 기호 유형론의 건축 디자인 적용 연구」, 『기호학 연구』54, 한국기호학회, 2018, 205~224쪽.
- 황영삼, 「목적론적 기호작용의 한정과 건축적 함의」, 『기호학 연구』58, 한국기호학회, 2020, 8~24쪽.
- \_\_\_\_\_, 「도메인 관계체계로서의 퍼스 기호학」, 『기호학 연구』58, 한국기호학회, 2020, 141~161쪽.
- \_\_\_\_\_, 「퍼스 포함구조 기반 의미생산과 도시장소 시험적용」, 『기호학 연구』64, 한국기호학회, 2021, 193~211쪽.
- Forty, A.,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2004, Thames & Hudson, 2004.
- \_\_\_\_\_,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 Eco, U., “A Componential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Sign /Column/”,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 Broadbent, G., Bunt, R., Jenks, C., John Wiley & Sons, 1980, pp.213~232.
- Jappy, Tony, *Introduction to Peircean visual semiotics*, Bloomsbury, 2013.
- Krampen, M., *Meaning in the Urban Environment*, Routledge, 1979
- Liszka, J.,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 Lampugnani, M,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1978, 윤재희 번역, 132쪽, 1982.
- Nöth, Winfried, “The Semiotics of Models”, in *Sign Systems Studies* 46(1), 2018.
- Proni, G., “Umberto Eco and Charles Peirce: A slow and respectful convergence”, in *Semiotica* 206, 2015.
- Seif, F., “Editorial Introduction design and semiotics: the de-sign constitution of reality”, in *American Journal of Semiotics*, 36:3-4, 2020, pp.165~178.
- Sheriff, J., *The Fate of Meaning*, Princeton Univ. Press, 1989.
- Silva, Tiago da Costa e, *The Logic of Design Process: Invention and Discovery in Light of the Semiotics of Charles S. Peirce*, transcript Verlag, 2018.

# A Semiotic Model for Architectural Materiality and Abstraction

Hwang, Young-Sam

This research is for semiotic review of architectural modeling. Among other research topics, this research is especially for modeling of architectural architectonic and symbolity, which is one of the opposite aspects in architectural modeling.

The approach adopted is by looking into the two different aspects of architectural objects in other semiotic names: materiality and abstraction. These two semiotic aspects are staying implicit in the sign inclusion scheme to be inferred in different viewpoints, contexts and circumstance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materiality and abstractions are related and can be encapsulated in inclusion scheme. The semiotic modeling and reasoning work tother with the sign inclusion scheme inferring architectural meanings. It means semiotics is a good approach for architectural modeling.

Keywords : Peirce, Determination, Semiosis Structure, Semiosis, Intentionality

투고일: 2022. 11. 25./ 심사일: 2022. 12. 18./ 심사완료일: 2022. 12. 19.